

# 서울 패션 위크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이지연<sup>1</sup>, 김장현<sup>2\*</sup>

<sup>1</sup>여주대학교 패션산업과, <sup>2</sup>중앙대학교 패션전공

## The Study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Fashion Week

Ji-Yeon Lee<sup>1</sup>, Jang-Hyeon Kim<sup>2\*</sup>

<sup>1</sup>Division of Fashion Industry,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Division of Fashion, Chung-Ang University

**요약** 셀러브리티들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대상이다.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하는 국내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자신만의 패션 미학을 대중들에게 노출함으로써 패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며, 컬렉션을 개최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창출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의 분석을 토대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분석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형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무채색의 활용,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셀러브리티들은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슬림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 원피스 드레스나 스커트의 착용, 부드러운 소재나 러플의 장식을 통하여 전통적인 여성미를 드러내는 페미닌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 또한 다수 나타남에 따라 남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박시 실루엣, 화려한 컬러들이 믹스된 멀티 컬러, 반짝이는 소재와 그래픽이나 레터링의 문양, 다수의 디테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elebrities form a dominant culture of one era and are cultivating influence to lead new fashion. Domestic women celebrities attending Seoul Fashion Week build their image as a fashion leader by exposing their own fashion aesthetics to the public. This promotes PR and sales of the brand of fashion designers in the collec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fashion trends of women celebrities by analyzing the fashion style of women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content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traight silhouettes, achromatic colors, and an absence of a pattern or decoration comprised a high proportion. Celebrities preferred a modern and minimal style. Second, they preferred a feminine style that shows traditional feminine beauty through slim and princess silhouettes, one-piece dress or skirts, soft materials, and decorations with ruffles. In addition, as a matching jacket on one-piece dresses also appeared, it showed that celebrities attempted to change the chic feminine style with masculine beauty. Third, boxy silhouettes, multi-color mixed with colorful colors, graphic or lettering patterns, glittering materials and lots of details comprised a high proportion. This means celebrities pursue a maximal style that reveals their strong presence as fashion leaders.

**Keywords** : Female Celebrities, Fashion Style, Content Analysis, Seoul Fashion Week, Korean Celebrities Fashion

\*Corresponding Author : Jang-Hyeon Kim(Chung-Ang Uni.)

email: jamie8122@nate.com

Received July 15,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16,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 1. 서론

셀러브리티(celebrity)[1]는 “TV나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우상시 되는 인물”로 한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함양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Walter Baghot[2]는 “눈앞에 있는 대상을 모방하려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이자, 근원적인 욕구”라 말했듯이 우월한 대상을 따라 하려는 대중들의 모방 욕구는 전 사회에 걸쳐 워너비(wannabe) 현상이라는 일련의 사회 현상을 등장하게 하였다. 대중들은 셀러브리티의 개성이나 취향이 표상화되어 있는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셀러브리티와 일원화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패션 유행은 의복이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 갈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기인 되는 하나의 경향[3]이라고 할 수 있다.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미적 욕구와 결부하여서 한 시대의 새로운 패션 유행을 창조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점을 함양하고 있어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셀러브리티들은 광고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형태를 함양한 구체적인 특징들을 갖춘 존재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변화하고 재현될 수 있는 이점을 내포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다양한 매체 속에 셀러브리티가 착용한 의복은 셀러브리티가 지닌 이미지와 결부되어,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에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도 한다[2]. 이처럼 셀러브리티가 함양하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 매해 새로운 컬렉션을 개최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은 셀러브리티들을 초대하여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대중들에게 노출시켜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컬렉션에 참석한 셀러브리티들 또한 자신만의 정체성이 반영된 패션 스타일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대중들에게 패션 리더로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5].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Lee[1]는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타의 결합으로 창출된 여러 패션콘텐츠를 토대로 스타의 패션이 가지는 문화적·산업적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Ko[2]는 셀러브리티 패션스타일에 의한 워너비 현상이 패션산업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Kim[6]은 할리우드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

여 대중을 비롯한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ark[7]은 셀러브리티 패션에서 표현된 게토 스타일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Joo and Ha[8]는 한국 셀러브리티를 중심으로 패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셀러브리티의 패션과 사회 현상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거나 국내·외 셀러브리티들의 패션에 나타난 특정 스타일에 대한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같이 셀러브리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 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참석한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사진을 토대로 의상 디자인 요소별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셀러브리티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셀러브리티들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대중들의 기대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셀러브리티의 스타일 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 방법과 내용분석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연구는 셀러브리티와 서울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 국내 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연구는 패션 스타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9-12]를 토대로 크게 실루엣, 아이템, 색상, 소재, 문양, 디테일 4가지 항목으로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셀러브리티의 패션의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재의 분석에 있어서 사진만으로 소재의 재질감이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의복 재질에 대한 시각적 감성어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사진 446장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셀러브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사전적으로 “유명한 또는 잘 알려진 인물”[13]의 의미를 지닌 셀러브리티는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이나 특정

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와 영향을 끼치는 사람”[14]을 의미한다. 셀러브리티란 개인이 이론 성과에 대한 가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파되고,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시, 사회적 표상이 되며,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확산성이라는 힘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셀러브리티와 패션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Kim[6]는 셀러브리티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미디어 매체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오늘날 셀러브리티는 문화적 이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와 개인적 취향과 욕망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상적 이미지와 패션을 전파하는 중요한 시각적 표현매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Baik and Lee[15]는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는 대체적으로 특정 분야의 집단에서 주목과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 즉, 셀러브리티와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공적인 패션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떤 소비층에게 수용될 것인지에 대한 유행 흐름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망하며, 모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o[2]의 연구에서 셀러브리티들이 등장한 배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타라는 특정 인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을 추종하여 닮고자하는 워너비 현상은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비롯하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방뿐만 아니라 성형을 통하여 외모를 바꾸기까지 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하였다. Joo and Ha[1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동경의 대상인 셀러브리티들은 패션 산업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패션산업에 참여하는 셀러브리티는 배우나 가수 와 같은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운동선수나, 정치인, 기업인 등뿐만 아니라 그들의 패션을 선망하는 소비자 자신이 패션 셀러브리티의 주체가 되는 현상으로써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까지 존재하였던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은 그들의 뛰어난 개인적 역량이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추종하고, 선망하는 대중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셀러브리티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과거 일방적인 전달자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셀러브리티에 대한 대중들의 위치가 추종자에서 동반자라는 의미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셀러브리티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욕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창조와 유행을 끊임 없이 발현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 또한 새로운 패션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패션 리더로서의 욕구를 함양하게 되는데, 누구나 자신의 패션 관념을 상대방에게 표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조성은 대중들이 패션 셀러브리티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는 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서울 패션 위크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울 패션 위크는 세계 4대 패션 위크라고 명명되는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에 이은 세계 5대 패션 위크로 성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제1회 서울 패션 위크는 1997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패션협회와 MBC 문화방송이 공동 주최가 되어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 각 디자이너별 그룹 쇼를 통합한 서울 컬렉션 및 서울 패션 페어, 대한민국 섬유 패션 대전, 서울 패션 인상 등의 여러 소규모의 행사들을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로 구성되었다[17]. 또한, 서울을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의 정부 기관들의 후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1세기 전략사업으로 패션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17,18]이라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서울시는 서울 패션 위크 전체 행사 주관기관이던 서울패션센터를 폐쇄하고, 민간 주도 방침을 제시하였으며[19], 2012년부터는 ㈜피플위즈프로모션과 이노션 월드와이드 등 민간 기업의 주도하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18]. 2014년을 기점으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으며[18], 2016 S/S부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구호 예술감독을 영입하여 ‘아시아 No.1 패션 위크’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20]. 2016년부터는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공식후원사로 지정됨으로써 ‘헤라 서울 패션 위크’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참가 디자이너의 선발 기준 강화 및 기업들의 협찬 유치 활성화,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 등 서울 패션 위크의 자립 기반을 강화[18]하고자 하였다. 2019 F/W부터는 공식후원사 ‘헤라’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서울 패션 위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비즈니스 플랫폼 강화와 글로벌 패션업계와의 협업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가 세계 시장에 보다 발 빠르게 진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

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21].

서울 패션 위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Joo[18]는 한국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서울 패션 위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ee[22]는 2017 F/W의 서울 및 홍콩 패션 위크에 참가한 업체 및 브랜드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델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델 속성과 이미지 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시아 패션업계의 모델 인식 경향을 살펴보았다. Lee and Kim[23]은 2017 S/S 서울 패션 위크의 ‘지속가능한 패션 그리고 디자인 런웨이’를 중심으로 윤리적 패션 브랜드의 공동 브랜드 기획의도, 과정,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윤리적 패션 철학 기반의 브랜드 간 협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런웨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서울 패션 위크는 오랫동안 국내 디자이너들의 세계화 및 국내 패션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패션 위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거시적으로 서울 패션 위크 행사 자체의 활성화 방안이나 패션쇼와 관련된 콘셉트, 또는 모델 등 패션 위크와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해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하여 대중매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 3.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내용 분석

#### 3.1 실루엣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실루엣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실루엣은 단일형 실루엣과 두 가지 실루엣이 절충된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단일형 실루엣의 경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4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박시 실루엣이 17.04%, 에이라인 실루엣이 14.1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슬림 실루엣이 8.74%, 프린세스 실루엣이 3.59%로 나타났다. 복합형 실루엣의 경우, 박시 실루엣과 절충된 복합형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박시 실루엣과 슬림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4.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박시 실루엣과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1.57%, 박시 실루엣과 에이

라인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0.45%로 나타났다.

Table 1. The analysis of the silhouett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The silhouett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traight silhouette	206(46.19)
Boxy silhouette	76(17.04)
A-line silhouette	63(14.13)
Slim silhouette	39(8.74)
Boxy+Slim silhouette	21(4.71)
Princess silhouette	16(3.59)
Mermaid silhouette	9(2.02)
Y-line silhouette	6(1.35)
Boxy+Straight silhouette	7(1.57)
Boxy+A-line silhouette	2(0.45)
Minaret	1(0.22)
Total	446(100)

#### 3.2 아이템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아이템의 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아이템은 원피스 드레스가 26.0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의와 스커트를 매치한 형태가 15.69%, 상의와 팬츠를 매치한 형태가 14.1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의와 스커트 또는 팬츠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가 각각 14.13%, 10.87%로 나타났으며,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도 6.05%로 나타났다. 또한, 점퍼나 코트, 카디건이나 베스트를 매치하여 연출한 형태도 나타났으며, 상·하의가 결합된 일체형의 점프수트를 착용한 형태도 살펴볼 수 있었다.

Table 2. The analysis of the item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The item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One-piece dress	116(26.01)
Top+Skirt	70(15.69)
Top+pants	63(14.13)
Top+pants+jacket	52(10.87)
Top+Skirt+jacket	39(8.75)
One-piece dress+jacket	27(6.05)
One-piece dress+coat	13(2.91)
Top+Skirt+jumper	12(2.69)
Top+one-piece dress	11(2.47)
Top+pants+coat	11(2.47)
One-piece dress+jumper	9(2.01)
Top+pants+cardigan	5(1.12)
Top+pants+jumper	5(1.12)
Top+Skirt+coat	5(1.11)

Top+jumpsuit	2(0.45)
Top+Skirt+cardigan	1(0.22)
Top+Skirt+vest	1(0.22)
Top+pants+vest	1(0.22)
One-piece dress+skirt+jacket	1(0.22)
One-piece dress+pants	1(0.22)
One-piece dress+pants+jacket	1(0.22)
Total	446(100)

### 3.3 색상과 색상의 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색상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색상 톤의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색상은 단색의 경우, 블랙이 9.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화이트가 5.16%로 나타났다. 두 가지 무채색 색상의 조합에 있어서,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이 1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채색과 유채색의 결합은 화이트와 블루의 조합이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블랙과 레드퍼플의 조합 2.02%, 블랙과 옐로우의 조합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두 가지 무채색과 한가지 유채색이 결합된 형태도 나타났으며, 유채색의 조합에서도 두 가지 유채색이 결합된 형태에서부터 네 가지 유채색이 조합을 이룬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의복 위에 다양한 패턴들로 인하여 컬러가 믹스된 멀티 컬러의 형태도 13.68%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he analysis of the color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The color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ingle color	Black	44(9.87)
	white	23(5.16)
	Blue green	12(2.69)
	Red purple	11(2.47)
	Yellow	9(2.02)
	blue	6(1.35)
	Gray	6(1.35)
	Yellow red	5(1.12)
	Red	3(0.67)
	Green	2(0.45)
	Green yellow	1(0.22)
	Purple	1(0.22)
	Coloration of two achromatic colors	Black+White
Black+Gray		8(1.79)
Black+White+Gray		6(1.35)
White+Gray		3(0.67)
Coloration of black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Red purple	9(2.02)
	Black+Yellow	8(1.79)
	Black+Yellow red	7(1.57)
	Black+Blue green	7(1.57)

Coloration of black and two chromatic color	Black+Red	6(1.35)
	Black+Purple	3(0.67)
	Black+Green	2(0.45)
	Black+Green yellow	1(0.22)
	Black+Purple blue	1(0.22)
	Black+Blue+Yellow red	1(0.22)
Coloration of white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Green yellow+blue	1(0.22)
	Black+Red+Yellow Red	1(0.22)
	Black+Yellow green+Red	1(0.22)
	Black+Yellow+Red purple	1(0.22)
	White+Blue	10(2.24)
	White+Yellow	7(1.57)
Coloration of white and two chromatic color	White+Red Purple	6(1.35)
	White+Purple Blue	6(1.35)
	White+Blue Green	5(1.12)
	White+Red	5(1.12)
	White+Yellow Red	5(1.12)
	White+Blue+Purple blue	2(0.45)
Coloration of gray and one chromatic color	White+Blue Green +Red purple	1(0.22)
	White+Red+Green	1(0.22)
	White+Red purple +Purple blue	1(0.22)
	White+Purple+Yellow	1(0.22)
Coloration of white and two chromatic color	Gray+Green	2(0.45)
	Gray+Blue	1(0.22)
Coloration of Black, white and one chromatic color	Gray+Blue+Yellow	1(0.22)
	Black+White+Yellow	4(0.90)
	Black+White+Red purple	3(0.67)
	Black+White+Yellow red	3(0.67)
	Black+White+Blue	3(0.67)
	Black+White+Red	2(0.45)
Coloration of Black, gray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White+Purple blue	1(0.22)
	Black+White+Green	1(0.22)
Coloration of two chromatic colors	Black+Gray+Blue	1(0.22)
	White+Gray+Red purple	2(0.45)
	White+Gray+Purple blue	1(0.22)
	White+Gray+Blue	1(0.22)
	White+Gray+Yellow red	1(0.22)
	Yellow+Red purple	2(0.45)
	Blue green+Yellow red	2(0.45)
	Blue+Yellow red	2(0.45)
	Blue+Purple blue	1(0.22)
	Blue+Yellow	1(0.22)
	Yellow+Blue green	1(0.22)
	Yellow+Red	1(0.22)
	Yellow+Yellow red	1(0.22)
Red+Purple blue	1(0.22)	
Red+Red purple	1(0.22)	
Green+Red purple	1(0.22)	
Green+Yellow red	1(0.22)	
Red purple+Blue green	1(0.22)	
Red purple+Green yellow	1(0.22)	
Red purple+Purple blue	1(0.22)	
Red purple+Yellow	1(0.22)	

Coloration of three chromatic colors	Blue green+Red purple	1(0.22)
	Yellow red+Blue+Purple blue	1(0.22)
	Yellow red+Blue+Purple	1(0.22)
Coloration of over four chromatic colors	Yellow+Blue+Yellow green	1(0.22)
	Black+Purple+Red Purple+Red	1(0.22)
	Black+Yellow+Yellow Red+Green	1(0.22)
	Black+White+Blue+Red Purple	1(0.22)
	Black+White+Blue+Red	1(0.22)
	Black+White+Red+Red Purple	1(0.22)
	Black+White+Yellow+Red+Blue	1(0.22)
	Black+White+Blue+Red Purple+Green	1(0.22)
	Black+White+Yellow Red+Blue	1(0.22)
	White+Purple Blue+Yellow+Red+Blue	1(0.22)
	White+Yellow+Yellow Green+Purple	1(0.22)
	Multi Color by a variety of pattern	61(13.68)
	Total	446(100)

Table 4. The analysis of the color ton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215)

The color ton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Light	44(20.47)
Bright	36(16.74)
Dark	10(4.65)
Deep	25(11.63)
Dull	12(5.58)
Light grayish	5(2.33)
Pale	27(12.56)
Vivid	36(16.74)
Bright+dull	1(0.47)
Bright+vidid	2(0.93)
Bright+deep	1(0.47)
Bright+light	3(1.40)
Light+dark	1(0.47)
Light+dull	2(0.93)
Light+vidid	2(0.93)
Light+deep	1(0.47)
Dull+deep	1(0.47)
Pale+deep	1(0.47)
Pale+dark	1(0.47)
Pale+vidid	2(0.93)
Pale+light	2(0.93)
Total	215(100)

### 3.4 소재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소재의 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가 78.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짝이는 소재가 4.26%, 투명한 소재가 1.57%로 나타났다. 복합적으로 절충된 형태의 소재도 나타났는데, 부드러운 소재와 투명한 소재가 절충된 형태가 7.4%로 나타났으며, 부드러운 소재와 반짝이는 소재가 절충된 형태 6.05%, 반짝인 소재와 투명한 소재가 절충된 형태 1.57%, 반짝인 소재와 투명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가 절충된 형태 0.22%로 나타났다.

Table 5. The analysis of the textil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The textil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oft	352(78.92)
Brilliant	19(4.26)
Transparent	7(1.57)
Brilliant+Soft	27(6.05)
Soft+Transparent	33(7.40)
Brilliant+Transparent	7(1.57)
Brilliant+Soft+Transparent	1(0.22)
Total	446(100)

### 3.5 문양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문양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서 문양이 없는 경우가 57.4%로 문양이 있는 경우인 42.6%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문양이 있는 경우는 그래픽 문양이 22.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레터링 문양이 17.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프 문양 15.26%, 체크 문양 12.11%, 자연의 문양 7.37%, 추상적인 문양 4.74%, 도트 문양 3.82%, 카툰 문양 2.63% 등이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패턴들이 혼재된 양상도 24%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he analysis of the pattern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190)

The pattern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Graphic pattern	42(22.11)
Lettering pattern	33(17.37)
Stripe pattern	29(15.26)
Check pattern	23(12.11)
Nature pattern	14(7.37)
Abstract pattern	9(4.74)
Dot pattern	7(3.82)
Cartoon pattern	5(2.63)
Tradition/Ethnic pattern	2(1.05)
Star pattern	2(1.05)
Pattern mix	24(12.63)
Total	190(100)

### 3.6 디테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디테일의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서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50.6%로 디테일이 있는 경우인 49.4%에 비해 근소하게 많이 나타났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디테일은 매듭과 러플이 15.45%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슬릿 12.73%, 프릴 1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플리츠가 9.09%, 끈 7.27%, 트임이 6.82%, 단추와 지퍼가 4.55%, 셔링 4.09%, 플라운스와 컷오프가 3.18%, 태슬과 파이핑이 각각 1.8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 7. The analysis of the detail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220)

The detail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Knot	34(15.45)
Ruffle	34(15.45)
Slit	28(12.73)
Frill	22(10)
Pleats	20(9.09)
String	16(7.27)
Vent	15(6.82)
Button	10(4.55)
Zipper	10(4.55)
Shirring	9(4.09)
Flounce	7(3.18)
Cutoff	7(3.18)
Tassel	4(1.82)
Piping	4(1.82)
Total	220(100)

#### 4. 결과 및 논의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패션 스타일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함이 강조되는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한 스타일이란 절제되고 깔끔한 도시적인 스타일링[24]으로, 직선이나 단순한 곡선 형태의 실루엣,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여 장식성이 배제된 간결미[25]를 추구한다. 미니멀 스타일이란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예술 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식적인 측면을 최대한 배제하고, 단일한 색채와 형태를 통한 절제된 간결함이 융화된 극소화된 형태미를 지향하며[26], 모던한 스타일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즉,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이란 장식적인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색채와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한 절제의미를 투영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상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직선형의 스트레이트 실

루엣(46.19%)과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32.97%)의 활용,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경우가 각각 57.4%와 50.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함이 강조되는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Seo'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2. Jung'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3. Son'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4. Le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Fig. 1[27]와 같이 외형의 직선적 실루엣과 내부의 단순한 곡선적 형태가 조화를 이룬 화이트 색상의 원피스, Fig. 2[28]처럼 직선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화이트 팬츠와 재킷에 블랙의 라운드 상의의 매치를 통한 흑백의 대비, 또는 이와 반대로 Fig. 3[29]처럼 블랙의 팬츠와 재킷, 흰색의 스트라이프 셔츠의 스타일링하거나, Fig. 4[30]처럼 블랙톤의 더블 브레스트 정장을 매치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직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된 의복에 장식을 배제하고, 블랙이나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을 단일 형태, 또는 아이템의 개별적 색상을 흑백의 대비로 연출함으로써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패션 스타일은

패션쇼라는 행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여성미가 강조된 페미닌 스타일과 남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닌은 '상냥한, 여성스러운'의 의미를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페미닌 스타일이란 품위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성스러운 스타일[25]을 뜻한다. 시크 페미닌 스타일이란 우아하거나 여성스러움만을 강조하는 페미닌 스타일에 매니시한 아이템과의 조합을 통하여 연출하는 것으로 일과 생활에 있어서 현대의 당당한 여성을 표상하고자 하는 2019년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 스타일[31]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여성의 신체를 드러낼 수 있는 슬림 실루엣(8.74%)과 프린세스 실루엣(3.59%), 여성성을 표출하는 원피스 드레스(26.01%)나 스커트(15.69%)의 착용, 부드러운 소재(78.92%)나 러플(15.45%)의 장식을 통하여 여성미를 드러내는 페미닌 스타일이 선호됨을 알 수 있으며,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6.05%)에서 당당한 여성의 시크 페미닌 스타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페미닌 스타일과 시크 페미닌 스타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Fig. 5[32]와 같이 레이스와 러플을 통한 장식과 이에 따른 볼륨감 형성 및 신체의 내부가 투영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Fig. 6[33]처럼 재킷의 허리와 스커트 상부를 힘에 밀착시킨 실루엣을 통하여 신체의 곡선을 노출시키고, 스커트 하단에는 러플들을 중첩을 통한 볼륨감을 형성하여 신체에서 표출되는 관능미와 의복의 곡선에서 자아내는 은유적인 여성미가 조화를 이룬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상화하였다. 또한, Fig. 7[34]이나 Fig. 8[35]과 같이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꽃의 형태미가 돋보이는 문양을 의복 위에 프린팅하여 여성의 섬세하고 우아한 감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였으며, 그 위에 남성적인 상징성이 내포된 보머 점퍼나 가죽 재킷을 매치하여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여성상을 반영하는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여성미를 자아내는 둥근 어깨선이나 허리 곡선이 강조된 실루엣, 신체의 내부가 투영되는 소재의 부분적인 활용, 레이스나 러플 등의 디테일의 강조, 도트나 플라워 패턴을 매치하여 소녀적이면서도 우아한 또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절충된 여성미를 표출하였다. 이는 신체에서 자아



Fig. 5. Park'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6. Kim'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7. Lee'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8. Kang'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내는 직접적인 아름다움과 의복의 형태에서 연상되는 은유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표출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적인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이나 가죽 소재가 접목된 바이크 재킷 등 매니시한 아이템을 페미닌 스타일에 매치하여 당당하고, 활동적인 현대의 여성상이 반영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이는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전통적인 여성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문화적 이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로서 변화된 가치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자유분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상을 패션스타일에 표상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한 최대의, 최대한도의"[36]란 뜻을 함양하고 있는 맥시멀은 '최소한도의 또는 최소의, 극소의'을 지향하는 미니멀과 상반된 개념이다. 패션에서는 1990년대 미니멀 패션의 유행 이후, 2000년대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과장된 장식과 유희성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나타나게 되었다[37]. 맥시멀 룩은 의복의 실루엣을 과장되게 형상화하거나, 다채로운 장식이나 디테일 및 다양한 요소들을 의복에 혼재시켜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38]하고자 하는 패션디자이너 내면의 자율성이 반영된 스



타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과장된 실루엣의 박시 실루엣(17.04%), 이와 절충된 복합형 실루엣(3.59%), 화려한 컬러들이 믹스된 멀티 컬러의 형태(13.68%), 반짝이는 소재(4.26%),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그래픽이나 레터링의 문양(39.58%)의 높은 비중, 디테일이 있는 경우도 49.4%를 차지하고 있음을 통하여 과장된 맥시멀 스타일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대표적인 맥시멀 스타일을 살펴보면, Fig. 9[39]와 같이 착용자의 신체 또는 내부에 착용한 의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체크 패턴의 롱 코트를 착장하거나, Fig. 10[40]처럼 꽃잎을 형상화한 패턴에 다채로운 색상을 적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Fig. 11[41]와 같이 베이지 색상의 바지에 부분적인 절개와 유사소재의 중첩을 통한 볼륨화 및 청바지의 일부분의 부분적 착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과도한 주름과 실루엣의 왜곡을 통하여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에 의한 맥시멀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Fig. 12[42]처럼 반짝이는 비즈와 스팽글로 수놓은 원피스 아래 과도한 러플 장식의 중첩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과장된 심미성을 표출하였다.



Fig. 9. Hong's fashion style in 2017 Seoul fashion week



Fig. 10. So's fashion style in 2015 Seoul fashion week



Fig. 11. Cha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Fig. 12. Wang'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이처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맥시멀 스타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복들을 레이어드하여 형성된 과장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색상의 점목, 화려한 프린트와 패턴, 다수의 디테일,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체주의적인 착장법 등 재미와 신선함을 동반한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통하여 셀러브리티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철학을 표출하였다. 또한, 셀러브리티들의 맥시멀 스타일은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대중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셀러브리티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패션 스타일은 베스트 드레서로 명명되어 대중들과 언론의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패션 희생자로 비유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8]. 하지만, 셀러브리티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과의 가치적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패션 문화와 유행을 창출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호의 의미를 함양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사진을 토대로 의상 디자인 요소별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실루엣, 컬러, 소재, 문양, 디테일로 내용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첫째,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박시 실루엣(17.04%), A라인 실루엣(14.13%)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단일적인 실루엣 외에 복합적인 실루엣의 형태도 나타났는데, 주로 박시 실루엣에 슬림(4.71%)이나 스트레이트 실루엣(1.57%)을 절충한 형태가 나타났다. 아이템 착장의 경우, 원피스(26.0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의와 스커트를 매치(14.80%)하거나, 상의와 팬츠를 매치(14.13%)하는 형태, 또는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가미한 형태(6.05%)가 나타났다. 둘째, 컬러의 경향은 블랙과 화이트(17.94%)가 함께 사용되거나 블랙 색상에 유채색의 포인트 칼라 또는 화이트 색상에 유채색의 포인트 칼라가 접목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색상 톤은 라이트 톤(20.4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이드 톤과 비비드 톤(16.74%), 페일 톤(12.56%)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재는 소프트한 소재가 78.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소프트와 트랜스페런트가 결합된 소재(7.4%), 브릴리언트와 트랜스페런트가 결합된 소재(6.05%)순으로 나타났다. 소재 패턴의 경우, 그래픽(22.1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레터링(17.37%), 스프라이프(15.26%), 체크(12.11%), 패턴의 혼합(12.63%)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테일의 경우, 매듭(15.45%)과 러플(15.4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슬릿(12.73%), 프릴(10%)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패션 스타일 경향은 첫째, 단순함이 강조되는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된 의복에 블랙이나 화이트의 무채색과 단일 색상을 접목, 간소화된 장식을 통하여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스타일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여성미가 강조된 페미닌 스타일과 남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둥근 어깨선이나 허리 곡선이 강조된 실루엣, 신체의 내부가 투영되는 소재의 부분적인 활용, 프릴이나 레이스, 러플 등의 디테일의 강조, 도트나 플라워 패턴을 매치하여 소녀적이면서도 우아한 또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된 여성미를 표출하였다. 이와 함께 남성적인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이나 가죽 소재가 접목된 바이크 재킷 등 매시한 아이템을 믹스 앤 매치하여 연출한 시크 페미닌 스타일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문화적 이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로서 자유분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상을 패션스타일에 표상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의복들을 레이어드하여 형성된 과장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색상의 접목, 화려한 프린트와 패턴, 다수의 디테일,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체 주의적인 착장법 등 재미와 신선함을 동반한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통하여 셀러브리티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철학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셀러브리티만의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과의 가치적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패션 문화와 유행을 창출하는 트렌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러브리티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채로운 패션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점으로 셀러브리티들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관한 정보들을 대중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중들이 단순히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셀러브리티들의 체형이나 외모, T. O. P에 따른 스타일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소통의 창을 전개한다면, 대중들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H. S. Lee, *A Study on the Entertainment Star Fashion*,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220, 2005.
- [2] Y. H. Ko, *A Study on the Wanna-be Phenomenon of Celebrity Fashion Style*,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pp.1-123, 2011.
- [3] K. H. Cho, S. H. Lee, *Fashion aesthetics*, p.43, Soohaksa, 2004.
- [4] Ehrenbourg, Ilya, H. R. Kim, *The factory of dream*, p.228-229, Noonbit, 2000.
- [5] J. H. Kim, J. Y. Lee, "Fashion style of Korean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Proceedings of spring Conference on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AIS, Jeju, Korea, June 2019.
- [6] S. R. Kim, *Celebrity Fashion and the Influence of Celebrity on a Fashion Society*,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152, 2007.
- [7] S. A. Park, "A study of ghetto style expressed in celebrit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17, No.3, pp.197-206, 2015.
- [8] S. Y. Joo, J. S. Ha, "A study on styl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victims :Focus on Korean celebr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38, No.1, pp.123-135, 2014. DOI: <https://doi.org/10.5850/JKSC.2014.38.1.123>
- [9] E. J. Lee, *A Study of the Costume Design for the Film Festival*,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p.1-94, 2005.
- [10] M. A. Park, H. Z. Ko, "Red carpet fashion style :Concentrating on from 2000 to 2012's academy awards and grammy awards the comparis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3, No.2, pp.14-28, 2013. DOI: <http://dx.doi.org/10.7233/jksc.2013.63.2.014>
- [11] H. S. Oh, K. H. Lee, "A study on the visual sensibility of clothing tex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 Clothing and Textiles*, Vol.26, No. 9, pp.1412-1423, 2002.
- [12] S. R. Bae, S. A. Kim, "A study on normcore fashion style of seoul collection",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4, No.4, pp.85-96, 2015.  
DOI: <https://doi.org/10.21195/jidr.2015.14.4.007>
- [13] 2019 Dictionary.com, LLC. Celebrity [Internet]. Dictionary.com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celebrity?s=ts> (Accessed April. 17, 2019)
- [14] Wikimedia Foundation, Inc., Celebrity [Internet]. ko.wikipedia [2019 May 30], Available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A%85%EC%9D%B8>(Accessed April. 19, 2019)
- [15] Y. J. Baik, Y. R. Lee, The understanding of fashion industry. p.1-336,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009.
- [16] S. Y. Joo, J. S. Ha, "Fashion industry system and fashion leaders in the digital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40, No.3, pp.506-515, 2016.  
DOI: <http://dx.doi.org/10.5850/KSCT.2016.40.3.506>
- [17]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The first opening of '97 Seoul fashion week",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1, No.3, pp.127, 1997.
- [18] B. R. Joo, "A study on Seoul fashion week aimed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ashion industry",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14, No.3, pp.105-124, 2016.  
DOI: <http://dx.doi.org/10.18852/bdak.2016.14.3.105>
- [19] D. S. Kang, Y. J. Park, 2012 Seoul fashion week: Focus on selecting event management company, [Internet]. Fashion Journal[cited 2012 Feb. 16], Available From: <http://www.okfashion.co.kr/detail.php?number=22261> (Accessed April. 15, 2019)
- [20] K. O. Seo, General director Guho Jeong, suggestions of reorganization in Seoul fashion week, [Internet]. Fashion Journal[cited 2015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okfashion.co.kr/detail.php?number=36783> (Accessed April. 15, 2019)
- [21] M. J. Yoo, '2019 F/W Seoul fashion week' opening day 19, [Internet]. Apparelnews[cited 2019 Mar. 6], Available From: <http://www.apparelnews.co.kr/naver/view.php?iid=75324> (Accessed April. 15, 2019)
- [22] S. Y. Lee, "A study on the model attribute factor and image cognitive in the asian fashion industry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2017 F/W Seoul fashion week and Hong Kong fashion week",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21, No.3, pp.288-299, 2019.  
DOI: <https://doi.org/10.5805/SFTI.2019.21.3.288>
- [23] K. J. Lee, I. Kim, "A study on sustainable fashion runway of ethical fashion brands: With a focus on 'sustainable fashion and design' runway of 2017 S/S Seoul fashion week",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16, No.2, pp.5-20, 2018.  
DOI: <https://doi.org/10.18852/bdak.2018.16.2.5>
- [24] S. J. Kwon, A. W. Jang, Fashion styling. p.1-219, Soohaksa, 2010.
- [25] G. S. Park, H. M. Sohn, S. J. Park, S. Y. Yoon, Fashion image styling. p.1-256, Gungmedia, 2009.
- [26] J. M. Bae, "A study on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ism fashion design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aesthetic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Vol.14, No.2, pp.161-169, 2013.
- [27] K. H. Jang, Seo'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Internet]. Newsen [cited 2016 Mar. 22], Available From: [http://newsen.com/news\\_view.php?uid=201603222001379310](http://newsen.com/news_view.php?uid=201603222001379310) (Accessed April. 17, 2019)
- [28] B. J. Park, Jung'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Internet]. JTBC PLU [cited 2016 Mar. 26], Available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790375&ctg=1502&tm=i\\_ntr\\_c011](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790375&ctg=1502&tm=i_ntr_c011) (Accessed April. 17, 2019)
- [29] J. S. Park, Son'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Internet]. Economic review [cited 2016 Oct. 19], Available Fr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07> (Accessed April. 17, 2019)
- [30] H. S. Lee, Le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Internet]. Newspim [cited 2019 Mar. 21], Available Fr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1000835> (Accessed April. 17, 2019)
- [31] S. K. Kim, New feminine look, Create a chic and confident atmosphere [Internet]. Fashion Seoul [cited 2019 Feb. 21], Available From: <https://www.fashionseoul.com/1662164> (Accessed June. 16, 2019)
- [32] K. Y. Shin, Park'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Internet]. Enuri [cited 2018 Mar. 22], Available From: <http://www.enuri.com/knowcom/detail.jsp?kbno=702615> (Accessed April. 17, 2019)
- [33] M. K. Kim, Kim'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Internet]. JoongAng Ilbo [cited 2018 Mar. 23],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2469409> (Accessed April. 17, 2019)
- [34] S. J. Song, Lee'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Internet]. Ilyoseoul [cited 2017 Oct. 18], Available From: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44> (Accessed April. 17, 2019)
- [35] S. M. Song, Kang'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Internet]. TVdaily [cited 2018 Mar. 20], Available From:

<http://mtvdaily.asiae.co.kr/article.php?aid=15215329191334909017> (Accessed April. 17, 2019)

- [36] 2019 Dictionary.com, LLC. Maximal [Internet]. Dictionary.com [cited n. d.], Available Fr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maximal?s=ts> (Accessed April. 17, 2019)
- [37] H. J. Kim, H. K. Kim, "A study on make-up designs based on maximalist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overseas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to 2011 F/W seas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11, No.3, pp. 99-115, 2011.
- [38] H. J. Byun, *Study on Formative Beauty of Maximal Look in the 21<sup>st</sup> Century*,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p.1-52, 2007.
- [39] J. Y. Park, Hong's fashion style in 2017 Seoul fashion week [Internet]. Xsportsnews [cited 2016 Oct 20], Available From: [http://www.xs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780591](http://www.xs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780591) (Accessed April. 17, 2019)
- [40] J. W. Shin, So's fashion style in 2015 Seoul fashion week [Internet]. Kyeonggiilbo [cited 2014 Oct 21], Available Fr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215> (Accessed April. 17, 2019)
- [41] D. K. Jang, Cha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Internet]. Moneys [cited 2019 Mar 21], Available From: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32116058096678> (Accessed April. 17, 2019)
- [42] C. W. Park, Wang'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Internet]. JTBC PLUS [cited 2019 Mar 23], Available Fr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19585](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19585) (Accessed April. 17, 2019)

김 장 현(Jang-Hy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6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예술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의전담교수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복식미학, 스포츠패션디자인

이 지 연(Ji-Yeon Lee)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학박사 수료)
- 2015년 1월 ~ 현재 : 교수창업 패션브랜드 '프로젝트 예프' 이사
- 2013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패션산업과 조교수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전통의상디자인, 패션문화콘텐츠